2020 제 2회 대학생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소감

한양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정세아

저는 대한민국에서의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는 부산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부터 문제정의를 시작했습니다. 21세기에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익사했다는 것에 너무나 개탄스러워하던 중에 경진대회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하차도 앞에서 우회하라는 손짓만 해줬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현장 통제를 위해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센서를 설치해서 iot를 구축했다는 주제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팀 스타일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4년간 전공에서 귀가 닳도록 들은, ‘이미 가진 것들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이라는 산업공학의 기본적인 철학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면밀히 조사해보니, 우리 나라의 교통인프라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스마트 강우 분석 시스템을 기획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합하여, 비가 많이 온 게 감지가 될 때, 중앙 서버에서 도로별 실시간 위험지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을 안전한 길로만 유도하도록 신호등이 나서서 일을 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제출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문제인식과 해결방법에 긍정적으로 공감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완성까지 함께 달려온 팀원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살아 있는 고민’을 해나가는 산업공학도가 되고 싶습니다.